

출장보고서 10-01

“2010년 기본과제(한-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의
중장기 비전 모색) 수행을 위한 현지조사”

출장기간: 2010.03.21~03.28

출 장 지: 러시아 모스크바

출 장 자: 이재영 유럽팀장

대외경제정책연구원

I. 출장개요

1. 출장자: 이재영
2. 출장기간: 2010. 03.21~03.28
3. 출장지: 러시아 모스크바
4. 출장목적: 2010년 기본연구 “한-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중장기 비전 모색”의 과제 수행을 위한 현지조사 및 중앙아시아 몽골 관련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전문가 인터뷰

II. 출장일정

일자	행선지	활동사항	비고
10-03-21	인천공항->모스크바	이동	
10-03-22	러시아과학원 본부 사회과학학술비서 러시아 외교부 및 국영신문사 기자 면담	인터뷰	
10-03-23	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, 경제연구소 및 모스크바국립대 방문	면담	
10-03-24	주러 한국대사관 방문	면담	
10-03-25	전략연구소 방문,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 소 갈리나 야스키나 박사 면담	인터뷰 및 간담회	
10-03-26	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전문가 및 주러 한국대사관 공사 면담	면담	
10-03-27	러시아 극동개발관련 전문가 면담 및 모스크바 출발	간담회 및 면담	
10-03-28	인천공항	도착	

Ⅲ. 활동 내용

1. 러시아과학원 본부 방문

가. 일시: 2010년 03월 22일(월) 10:00 ~ 11:30

나. 장소: 사회과학분과 학술서기실

다. 면담자: L. A. Anosova 학술서기, N. V. Popenko 과학기술 및 정보실 부실장

라. 주요 내용

□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는 매우 큰 타격을 받았음.

- 2009년 러시아 GDP는 전년대비 7.9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CIS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임.

- 이는 주로 국제유가 폭락 등 원자재 가격하락에 크게 기인하였음.

□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과학원을 비롯한 모든 관련 연구소들은 '위기극복'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하고 있음.

- 러시아는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초기와 달리 생산회복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음.

- 초기에는 재정지원이 은행 및 금융부문에 집중되었으나, 최근에는 생산회복을 위한 실물부문에 대한 투입이 강조되고 있음.

- 또한 러시아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, 이는 중산층 형성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

- 향후 러시아의 농업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문의 발전에

도 관심을 쏟고 있음.

□ 이와 더불어 최근 러시아 접우는 산업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
- 기계, 원자력, 에너지, 나노 분야 등 과거 러시아에서 발전했거나, 향후 발전 잠재력이 높은 부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음.

□ 러시아정부는 나노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.

- 러시아 정부는 3년 전에 국영 로스나노(ROSNANO)사를 설립하고, 추바이스를 회장으로 임명하였음.

- 러시아과학원 학자들이 동 회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.

- 또한 러시아과학원 내에 2008년 정보기술 및 계산 시스템 분과를 설립하였는바, 동 분과에는 정보통신, 나노기술 등을 연구하는 팀이 있으며, 나노기술분과는 노벨상 수상자인 알표로프 박사가 이끌고 있음.

□ 러시아과학원은 2008년에 “2008~2012년” 기초학술연구 프로그램을 확정하였음.

□ 최근 3년간 러시아과학원은 전체 인력을 30% 가량 축소하여 나머지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였음.

2. 러시아 외교부 직원 및 국영신문사 기자 면담

가. 일시: 2010년 03월 22일(월) 19:00~21:00

나. 장소: 백학

다. 면담자: Oleg Pirojjenko 외교부 서기관, Oleg Kiriyanov 러시아국영신문사 '로스스카야 가제타' 기자

라. 주요 내용

□ 최근 한국과 러시아는 한-러 전략대화(KRD)를 준비하기 위해 입장조율을 하고 있음.

- 조만간 러시아 데니소프 외교부 제1 차관과 한국 신각수 차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음.

- 한-러 전략대화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.

□ 2009년 11월 러시아 미로노프 상원의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러-북 관계를 논의하였음.

- 나진-하산 철도 개보수 문제와 북한의 항구와 관련된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하였음.

□ 최근 러시아는 이르크츠크 옆의 앙가라에 “국제원자력센터”를 설립하였음.

- 이는 우라늄 농축을 위한 센터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, 한국도 참여할 것을 요청함.

- 이 센터는 원자력 기술이 확산되면서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,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러시 이 분야에 관한 한-러 양국 공동선언이 채택된 바 있음.

□ 최근 스킨 헤드의 한국인 습격 사건은 한국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, 우발적인 사건임.

- 따라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러시아인들의 일반적인 견해임.

3.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방문

가. 일시: 2010년 03월 23일(화) 10:00~11:00

나. 장소: 극동연구소 소장실

다. 면담자: M. L. Titarenko 소장

라. 주요 내용

□ 한-러 수교 20주년은 기쁘게 생각하지만, 최근 한-러 관계가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됨.

- 외형상 정상적인 관계로 보이지만, 실제 큰 성과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임.
- 한국 기업가들의 러시아 진출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음.
- 따라서 낙관론에서 '적절한 비관론자'로 변하게 되었음.
- 한-러 전략대화는 시험적인 사업이고, 대화가 시작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임.
- 이는 한국측 잘못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중국, 미국, 일본, ASEAN에 대해 우선적인 정책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됨. 물론 한국에는 부합하는 정책일 수도 있지만, 러시아로서는 약간 섭섭함.

□ 한-러 철도협력도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.

- 한국이 참여하는 두만강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음.
- 가스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아직 큰 그림만 있고, 구체적인 진전은 미약함.
- 가스관이 북한을 통과하면 좋겠지만, 러시아-중국-해상노선도 가능하다고 판단됨. 특히 한-중 관계가 양호하고 러시아도 이러한 협력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됨.

□ 러시아 극동개발 2025전략은 커다란 의미를 갖지만, 실행이 잘 될지는 확신할 수 없음.

- 그동안 극동개발 프로그램 10여개 가운데 단지 3개만 실행되었음.
- 알렉산드르 비테 치하의 스톨리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극동, 시베리아 이주, 시베리아횡당철도 건설, 1930년대 소련 개발계획에 따라 마그니트, 케메로보 등 새로운 시베리아 도시들이 탄생하였음.
- 그러나 브레즈네프, 고르바초프, 옐친 시기에 단 하나의 극동개발 프로그램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음.
- “극동개발 2025 전략에서 예산과 인력 제공이 중요함.
- 물론 극동 및 시베리아 개발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.
- TSR 현대화 사업은 오래전에 실시해야 하지만, 아직 논의만 되고 있으며, 하바로프스크-치타 연결 도로 건설도 진행 중이지만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됨. 즉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.

□ 러-중 관계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됨.

- 미국인들이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됨. 물론 러시아 상층 엘리트 내에서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음.
- 그러나 티타렌코 소장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 생각함. 중국도 러시아가 필요한 상황임.
- 러시아는 중국과 ‘공동의 번영’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판단됨.
-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기를 원하고 있음.

□ 중국의 현 상황은 양호한 편이지만, 중국의 내부 및 외부 위협 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.

-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문제, 즉 경제발전에 따른 지역간, 연안-내륙간 생활 수준 격차가 심화된 것이 큰 문제임.
- 향후 중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중요함. 지금 중국은 이를 잘 인식하고 있음.
- 현 지도부의 정책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예상됨.
- 만약 미국식 정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중국에서 폭동도 발생 가능함.

4. 러시아과학원 경제연구소 방문

가. 일시: 2010년 03월 23일(화) 11:15~12:00

나. 장소: 경제연구소 부소장실

다. 면담자: D. E. Sorokin 부소장

라. 주요 내용

-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는 세계경제위기의 원인제공자가 아니고,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함.
 - 세계 GDP의 2%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세계 투자는 2% 미만이며, 러시아는 세계경제의 '기관차'가 아님.
 -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러시아는 세계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았음.
 - 정부수입의 40% 이상을 석유 및 가스 수익에 의존하기 때문에 석유 광물 자원 등 주요 수출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면서 영향을 받았음.

- 위기 이전에 러시아 은행들은 국내 이자율이 15%에 이른 속에서 3%의 이자로 해외에서 차입을 하였음. 해외에서 발생한 위기로 인해 이자율이 인상되면서 재차입을 하지 못해 전략적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가 지원하였음.

-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러시아 기업들의 모럴 헤저드를 초래하였음.

□ 2009년 대폭적인 GDP 성장률의 하락(-7.9%)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큰 문제가 없음.

- 1998년 금융위기를 겪었고, 현재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상승할 것임(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).

- 러시아 경제는 곧 위기 이전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.

- 가장 큰 문제는 모두 대외시장 의존적이라는 점에 있음. 따라서 문제는 GDP 감소가 아니라 소득을 높이는 것인데,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음.

- 중국이 수퍼 파워로 곧 미국의 GDP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, 어떤 구조로 GDP가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함.

- 19세기 중반 중국은 유럽보다 GDP 규모가 컸으나, 서방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음.

- 따라서 러시아에서도 중요한 것은 기계제작 분야 등 '혁신'을 통해 GDP 구조를 개선해야함.

□ 현재 러시아 정부는 경제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으나, 실제 행동과 실천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- 그 이유는 러시아산 기계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임.

- 이는 러시아가 지나치게 독점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기계제작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임.

- 기업들은 독점구조 하에서 정부의 우산아래 관료들과 합의하여 혁신을 저해하고 있음.
- WTO 가입이 필요하지만,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.
- 러시아는 현대화 위해 기술과 인력이 필요함.

□ 러시아의 향후 경제발전 전략 및 전망에 대해서는 조만간 출간될 경제연구소 저널 “경제학의 제문제” No. 5에서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임.

5. 주러 한국대사관 방문

가. 일시: 2010년 03월 24일(수) 15:00~16:00

나. 장소: 경제공사 집무실

다. 면담자: 이종국 경제공사, 임형태 경제과장

라. 주요 내용

□ 2009년 한국의 대러 교역량은 전년대비 절반으로 축소됨.

- 특히 한국의 대러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여 큰 타격을 받았음.
- 전자의 경우 2009년에 예상과 달리 판매는 양호한 편이었음.
- 한국 전자제품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이 40~50%에 이르고 있음.

□ 금년도 러시아 경제는 경제예측기관에 따라 3.1%~4.5%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.

□ 러시아 메드베제프 대통령은 경제현대화를 강조하면서 자원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함.

- 이는 대통령의 절박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신기술/첨단기술의 도입 없이 러시아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러시아 지도부가 잘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.

□ 금년 한-러 수교 20주년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.

- 각종 문화행사 외에도 금년 5월에는 한국일류상품전을 크레믈린 앞의 마네주 전시장에서 개최할 예정임.
- 지식경제부의 지원 하에 한국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약 70-80개 기업들이 참여하여 일류상품을 전시할 계획임.
- 한-러 대화도 준비 중에 있으며, G-20 정상회의시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될 것임.

□ 러시아는 인구 1억 4천만명, 일인당 소득 1만 달러에 달하는 중요한 시장임.

- 아직 인구 1천명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340대에 불과해 자동차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큼.
- 최근 현대자동차 외에 토요타, 닛산, 미츠비시, 포드, 폭스바겐 등이 진출해 있는 등 러시아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각축장임.

□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러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.

- 롯데제과, KT&G 등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, 대우조선해양이 극동지역에 합작사를 설립하였음.
- 2009년부터 사할린-2에서 LNG 수입이 시작되었음. 연간 150만 톤씩 20년간 수입하기로 하였는데, 이는 국내수요의 약 6%를 충족시키는 규모임.
- 특히 사할린에서 LNG 도입은 3일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의 15% 정

도가 운송비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정도의 운송비 절감효과가 있고, 수입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- 한국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중임. 다만 201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러시아는 주요 공사를 자국기업에 발주하고 있어 한국이 원청자로서 공사를 수주하기는 어려움이 있음.

- 따라서 한국은 전자재 공급, 부속 시설 등에 참여하기 위해 협의중에 있으며, 최소 수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정도의 수주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임.

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서 연방정부부처들 간의 조정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.

- 예컨대 연방정부는 에너지와 가스프롬을 통제하고 있고, 어업은 수상청, 물류는 교통부 등이 관장하고 있어 개별사업에 대한 러시아 지역개발부의 조정능력이 부족함.

- 또한 사할린주 등이 한국에 투자를 요청하고 있지만,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음.

6. 푸틴의 싱크탱크 '전략연구소' 방문

가. 일시: 2010년 03월 25일(목) 11:00~12:00

나. 장소: 전략연구소

다. 면담자: Pavel Chistyakov 연구원, Pavel Korovko 연구원

라. 주요 내용

러시아 극동 및 자바이칼 개발전략 2025가 2009년 12월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세부 추진계획을 실행 중임.

- 오늘 러시아 지역개발부가 동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는 날임.

- 빠르면 1달 내에 구체적인 조치들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극동 · 자바이칼 지역 발전의 전략적 목적은 경제 성장과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역내 인구 증가와 국내 평균 수준의 지역 경제·사회 발전 추구이며, 이를 위한 우선 과제는 다음과 같음.

- 이 지역의 각 주체별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유망한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,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의 경제·사회발전 전략 및 대기업의 전략프로그램 마련.

-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유망 경제성장 지역으로의 지속적인 주민 이주 시스템 구축.

- 극동 · 자바이칼 지역과 러시아 기타 지역과의 경제·사회적 통합에 대한 장애 요인 제거, 각종 제도 및 법규 정비,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.

- 인적자본의 양적·질적 제고.

- 토착 소수민족의 전통 생활양식 유지 및 지원.

□ 극동개발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현재 블라디보스톡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.

- 블라디보스톡은 2012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현재 진행중인 개발 프로그램 예산의 약 30%가 이 속에 집중되고 있음.

- 이 외에도 운송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도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음.

□ 향후 극동지역 개발전략을 통해 러시아의 연해주와 야쿠치야공화국이 더

육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.

- 극동 지역에서 향후 목재가공, 어업, 정유 및 가스정제, 운송 분야 등이 유망한 협력분야로 부상할 것임.

7.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갈리나 야스키나 박사 방문

가. 일시: 2010년 03월 20일(목) 15:00 ~ 16:30

나. 장소: 갈리나 야스키나 박사 자택

다. 면담자: Galina Ysskina 박사

라. 주요 내용

□ 몽골의 전략적 가치

- 과거에는 중국, 미국, 한국 등이 몽골과 같은 작은 국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없었으나, 글로벌 시대에 보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.
- 몽골은 해상출구가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, 아시아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점이 있음.
- 몽골은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며,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, 광물자원이 부족한 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, 러시아도 입지가 약화 될 것을 우려하여 최근 몽골과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.
- 러시아는 과거와 달리 국가가 아닌 가스프롬 등 기업수준에서 몽골과의 협력증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(예컨대 몽골을 통해 중국까지 가스관 부설에도 관심이 있음).

□ 주요국의 대몽골 협력 현황

- 러-몽 협력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. 2009년 러-몽 교역량은 13억 달러

임.

- 러시아의 경우 몽골 내 기업설립 경험이 풍부하며, 철도부설 등에 참여하였으며, 몽골에서 대규모 광물채굴 합작기업을 운영하고 있음.
- 중국은 몽골의 전략 광물자원에 대해 관심이 높은 편이며, 향후 대몽골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.
- 중국은 아직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몽골에 투자하고 있으며, 특히 남부 국경지역에서 중국인들이 불법적으로 넘어와서 활동 중임.
- 러시아와 중국은 몽골에 대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였음.
- 일본의 경우 몽골 캐시미어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여 동 제품을 러시아 등으로 활발히 수출하고 있음.
- 한국의 경우 몽골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판단되며,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과 몽골이 원하는 것을 잘 조율하여 진출하고 있다고 평가됨.

몽골의 전망은 밝다고 판단됨.

- 몽골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점차 도시들을 개발할 것으로 전망됨.
- 향후 한국 중소기업이 몽골에 진출할 경우 유망하다고 판단되는데, 이는 몽골에 원료가 풍부하고, 한국은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임.
- 또한 육류가공 공장 및 털가공 공장을 설립할 경우 유망하다고 판단됨.

8. 기타 활동

모스크바국립대학교 Business School을 방문하여 논문 기고 문제 논의

대형 서점('책의 집') 방문 및 자료 구입

- 러시아 경제, 몽골 경제 등 관련자료 구입(단행본 10권)

□ 러시아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설 세계경제연구센터 방문 자료 수집

- 러시아 경제, 중앙아시아 경제 관련 서적 및 저널 구입(저널 5권, 단행본 5권)

- 끝 -